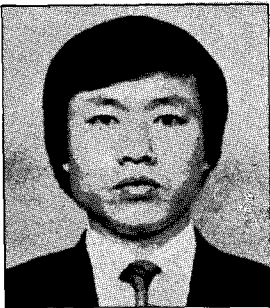


“계란호황, 육계불황”

최 근 양계업계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것이 UR이라는 두글자다. UR은 물론 심각한 사태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앞서 당할 수는 없지 않는가? 더욱 분발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미래에 대한 가격전망을 한다는 것이 항상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든다. 언제 입추하면 시세가 얼마 될 것인지 언제 마음놓고 입추하라고 해야 되는데 항상 언제 시세가 나쁘니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되풀이 되는 상황으로 끝을 맺게 되곤 한다. 양계업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업이고 보니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불황이 와도 계속해야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불황기에는 피해를 줄여 나가고 호황기에는 이익을 많이 올리

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가격전망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함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소신을 갖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료를 중심으로한 4/4분기 내지 91년도 가격흐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강재명

분회 지도조사과장

□ 계란전망

“10월 약세이후 전반적으로 호황세 지속될 듯”

계란시세는 근래 보기 드문 호황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로 인해 사업투자자에 대한 혼선이 야기되어 안정적인 채란산업 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9월들어 유사 이래 최고의 시세인 특란 80원대를 진입하는, 그야말로 고난가시대

를 맞은 느낌을 주고 있다. 물론 타상품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계란 값은 낮은 편이지만 우리는 외국의 수입상품과 싸워야하는 현실앞에 우려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이러한 값 상승에는 몇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적정 사육수수의 유지 둘째, 폭염으로 인한 하절기 생산성 저하 셋째, 장기간의 연휴와 추석수요에 대비한

가수요 넷째, 전반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동반상승 즉 채소류의 값 상승.

이와같은 원인들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계란값 폭등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같은 호황이 지속될 것인가는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해보자.

실용계 산란병아리 입추추세를

보면 향후 본격적인 계란생산에 영향을 주는 89년 5월부터 90년 4월까지 입추된 병아리 수수가 31,420천수로 지난 동기간 27,552천수에 비해 14%정도 증가하였다. '89. 4/4분기중 특란 평균시세가 65원이었던 것을 보면 금년 또한 60원대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추석이후 10월중 계란값은 큰 폭 하락세에서 2중시세형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이러한 추세로 보아 내년도에는 점진적으로 계란생산량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같은 호황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아리값이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0원을 상회하는 시세가 근 1년이상 지속됨에 따라 생산잠재력을 훨씬 증가하는 병아리 생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높은 병아리값이 장기화될 때는 병아리 과잉이 궁극적으로 난기불황을 자초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표 3의 산란중계(PS)입식현황을 보면 8월까지 325,485수가 입식되어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3.8% 증가추세에 그쳤다. 병아리

표 1. 연도별 초생추 사료 생산량 및 실용계 병아리생산 추정수수

(단위 : 톤, 천)

구 분	초생추사료 생산량			병아리 생산 수수		
	'88	'89	'90	'88	'89	'90
1	2,957	2,628	3,699	1,812	2,055	2,309
2	2,990	3,390	3,810	2,916	3,602	3,291
3	4,812	5,944	5,430	3,141	3,621	3,124
4	5,183	5,975	5,155	2,645	3,365	3,555
5	4,365	5,553	5,866	1,891	2,821	3,159
6	3,120	4,654	5,212	1,484	2,536	3,061
7	2,448	4,184	5,051	1,621	2,363	3,673
8	2,675	3,899	6,060	1,947	2,462	3,758
9	3,212	4,062		2,088	2,208	
10	3,446	3,644		2,260	2,279	
11	3,730	3,761		2,025	2,230	
12	3,342	3,679		1,593	2,242	
계	42,281	51,355		25,423	31,784	

표 2. 병아리 시세 현황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 균
산 란 용	88	358	397	406	394	382	329	315	357	393	416	395	441	382
	89	533	545	551	560	544	493	466	443	404	377	411	483	471
	90	548	568	585	575	576	577	576	582					
육 용	88	222	289	231	123	149	166	150	212	272	260	338	348	230
	89	362	350	276	340	256	363	360	357	361	350	376	380	344
	90	403	405	408	419	427	424	408	415					

생산잠재력은 내년 상반기까지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예년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병아리값 강세가 지속될 경우 다소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내용을 종합해 보면 4/4분기 계란값은 생산측면에서는 추석 이후 약간의 과잉소지는 내포하고 있으나 가격인하와 더불어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 기간 생산비를 웃도는 정도의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같은 계란값 호황과 더불어 병아리값 또한 600원을 상회하는 고가가 지속되면서 물량부족이 금년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91년도 계란값은 금년보다는 하락세로서 생산량 또한 꾸준한 증가세 예상되어 병아리 입추에 신중을 기하고 환우는 가급적 피하고 신계편입으로 후보계를 대처해 가면서 계란값 안정을 위해 힘써야 되겠다.

□ 육계전망

“연말년시 육계불황 조짐 우려”

금년도 육계값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병아리값이라 여겨진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년내내 400원을 웃도는 시세가 형성됨에 따라 생산잠재력에서 30% 가까운 증가요인을 발생시켜 육계값은 겉으로 보기에 좋은 듯 싶으나 생산비가

표 3. 산란용 종계(P.S)입식 현황

구 분	'88		'89		'90		
	계	국 산	수 입	계	국 산	수 입	계
1	51,988	42,937	42,000	84,937	29,200		29,200
2	21,500	33,147	7,000	40,147	32,800	9,100	41,900
3	16,077	23,475		23,475	26,100	6,500	32,600
4	27,920	41,646		41,646	20,100		20,100
5	65,624	46,067	10,000	56,067	38,300		38,300
6	38,425	14,500	13,900	28,400	34,800	58,000	92,800
7	8,325	2,700	21,325	24,025	27,785		27,785
8	41,944	14,750		14,750	23,800	19,000	42,800
9	2,885	13,350	54,100	67,450			
10	23,952	41,100	4,200	45,300			
11	49,372	40,550		40,550			
12	55,580	33,201		33,201			
계	403,592	347,423	152,525	499,948			

위낙 높아 아주 재미없는 그야말로 헛농사를 지은 농부의 마음이 아닌가 싶다. 아직까지도 병아리값은 여전히 강세가 지속되고 더욱이 내년도 병아리 생산잠재력까

지 높아 육계가격 침체는 언제 벗어날지 오리무중인 상태로 보여진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4분기 이후 병아리생산 잠재력이

표 4. 육용실용계 잠재력

(단위: 천수)

월 별	88	89	90	91
1	21,597	22,532	20,471	26,206
2	22,637	23,373	20,983	27,866
3	23,710	24,283	22,136	30,489
4	24,983	25,258	23,597	
5	25,471	25,477	24,435	
6	24,665	22,321	24,914	
7	22,022	23,191	24,509	
8	21,192	20,542	23,010	
9	19,813	18,845	21,919	
10	19,618	19,087	22,117	
11	20,824	20,072	23,615	
12	20,082	20,125	25,052	
계	266,614	265,106	267,758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병아리값이 현재와 같이 강세가 지속될 때 연말 병아리를 기점으로 해서 20~30% 가까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연말병아리 입추의 과잉으로 인한 연말 육계값 불황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의 입추열기로 보아서는 오히려 병아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보여 어찌면 본격적인 육계불황의 전초기가 되지 않을까 더욱 염려된다.

또한 표 5의 육용계 입식은 숫자 그대로 보아서도 걱정이 앞설 정도로 입추열기가 극에 달하고 있어 내년도 병아리값은 물론 육계값도 캄캄하게 느껴진다. 이 표를 보면서 부화경기의 호황에 편승한 종계입식 열기가 얼마나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GPS에서 생산된 물량만 보더라도 적정수수 이상인 반면 수입종계가 8월까지 32만수를 웃도는 숫자로 작년 총수입물량의 3배에 이르고 있다. 수입물량의 증가요인은 병아리값 상승으로 인한 수요증가와 국내 PS 가격이 수입 PS 가격보다 500원 정도 높은데 따른 수입물량이 증가한 것 같다. 이같은 현상은 실용계 병아리값이 높으면 물량이 증가하는 요인과 똑같은 위치로 생각된다.

그러나 금년도 소비성향은 30% 가까운 소비신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외식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표 5. 육용 종계(P.S)입식 현황

구분	'88		'89		'90		
	계	국산	수입	계	국산	수입	계
1	131,000	85,386		85,386	111,203		111,203
2	177,891	139,100	62,400	201,500	218,723	24,100	242,823
3	297,766	248,635	30,300	278,935	268,830	37,600	306,430
4	267,400	210,198	25,800	235,998	235,425	72,220	307,645
5	198,910	222,005		222,005	297,441	21,800	319,241
6	232,000	165,180	24,900	190,080	248,918	35,782	284,700
7	297,510	259,769		259,769	298,200	62,242	360,442
8	189,250	281,572		281,572	371,400	67,942	439,342
9	240,257	230,865	15,900	246,765			
10	210,762	210,300	16,800	227,100			
11	111,278	200,750	8,500	209,250			
12	108,518	178,434	6,000	184,434			
계	2,462,542	2,432,194	129,600	2,561,794			

2년전부터 양념통닭의 체인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최근들어 신장세가 둔화되고 있는것이 내년도 육계값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금년4/4분기보다는 내년도가 더욱 육계값이 불안스럽게 보인다. 4/4분기 육계값은 불안한 가운데도 한가닥 희망을 걸 수 있으나 내년도는 그러하지 못한 것 같다.

앞으로 육계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적정병아리값이 유지됨에 따라 생산성이 낮은 노계군은 노태되고 환우계군수의 감소로 근본적인 병아리 물량이 줄지 않으면 육계불황의 장기화로 육계농가의 도산이 늘어나 결국 부화업계

로 파급될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육계경기가 좋은 시기를 찾지 못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육계값 약세 분위기로 PS, CC모두 입추를 자제하는 슬기 속에서 내년도 육계값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불황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질 시기가 온 것 같다.

양11

